

■ 광주지법 판사 17명-기결수 15명 '색다른 만남'



광주지법법원 판사 17명은 3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기결수 15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느낀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기결수 “그땐 섭섭했어요” 울먹

담당 판사 “법정 형량 이해해야”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설 때면 가슴이 그렇게 떨렸는데, 법정이 아닌 교도소에서 마주해도 떨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일이 없도록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앞으로 형사재판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법정에서 법관과 피고로 만났던 판사와 재소자(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색다른 만남을 가졌다.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과 광주교도소(소장 이규준)는 3일 오후 2시 광주교도소에서 ‘판사와 기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법에선 제3형사부 이제강 부장판사 등 형사재판 담당 판사 17명이 참석했고, 광주교도소에서는 수감 중인 이모(38)씨 등 기결수 15명이 참석해 1시간여가량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느낀 어려움을 판사들이 직접 듣고, 현행 형사재판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결수들은 판사들에게 정확한 양형기준을 물고, 전과자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도·강간미수 죄로 4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모(34)씨는 판사들에게 “같은 죄를

흘린 기결수도 있었다. 금은방을 털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모(28)씨는 “3년 전 처음 죄를 짓고 경찰서와 법원을 가봤다. 당시에는 어린 나이여서 큰 죄인 줄 몰랐다. 첫 실수였는데 항소심 담당 판사가 징역

당시 유씨의 담당 판사였던 최인규 판사(민사 2단독·공보 담당)는 “강도 상해죄는 법률상 최고 징역 7년 이상이어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 “징역 3년 이상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살인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38)씨는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하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과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인규 판사는 “판사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양형을 선고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작해 법원 판사들에게 열람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과자 방어권 강화해주세요”

“양형·선고 좀 더 신중 기할 것”

짓고도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신중 부장판사(제2형사부)는 “판사라고 마음대로 양형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죄질과 범행 후 반성 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 양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선고했던 판사를 이날 직접 만나 눈물을

4년형을 선고했다”면서 “판사에게 섭섭하고 아쉬움, 미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3년을 살았고,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다. 수감자들은 징역 1년, 2년을 엄청 나게 크게 생각한다”며 “판사들이 초범이고 나아도 어리면 인간적인 배려를 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으면 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인제후보 경호차·경찰 오토바이 충돌

임산부·경찰 등 3명 중경상

어제 광주 송정동

대선 후보 경호차량이 경찰 오토바이와 충돌, 임산부와 경찰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11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민주당 이인제 대통령 후보의 뉴그랜저 경호차량이 경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임산부 오모(27·광산구 송정동)씨와 유모(여·70·광산구 소촌동)씨 등 2명이 허리와 다리에 타박상 등 중상을 입

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광주지방경찰청 서모(40)경사는 부상 정도가 가벼워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고 현장에는 이인제 후보 외에도 권영길 민노당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5일 장에서 김강리를 사려는 시민들까지 몰려 혼잡했었다”며 “경호차량이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급발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정신지체 일가족의 ‘눈물’

가장 산재 사망…부인·아들·노모 생계 막막

정신지체 장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40대 정신지체 가장(家長)이 작업장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숨진 바탕에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정화조 제조업체인 J공장에서 노모(41·광산구 우산동)씨가 작업 중 머리를 크게 다쳐 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오전 9시 숨졌다.

노씨는 사고 당시 페비닐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오른 기계 상판(크기 50cm·두께 10cm·무게 35kg)에 머리를 부딪쳤고, 녹 아내인 페비닐로 인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다. 노씨는 병원

에서 응급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가 부는 뇌부종(腦浮腫) 현상이 일어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어렸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않은 뒤 정신지체 장애 증상을 보인 노씨는 지난 98년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39)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도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관계자는 “70 노모를 모시고 사는 노씨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히 사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근로자였다”며 “사업재해 처리를 하고 가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우침 7374



나이트서 만난 여대생에 음란 전화
○·광주 북부경찰은 3일 1년 전 나이트를 끊어서 만난 여대생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건 김모(25·광주시 서구)씨를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발신전화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이용, 광주 모 전문대학 1학년 H(여·21·광주시 북구)씨에게 음란 전화를 했다는 것.

○·김씨는 “우리 둘이 만나서 ×× 할까?” “자기랑 ××하고 싶어”라는 등 노골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

○·김씨는 경찰에 “H씨에게 여러 차례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나니 ‘농도가 진한’ 전화를 걸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